

손택수

단독자, 언어의 싱싱한 피부와 천진스러움

병리학자로서 40년 가까이 실험실에 틀어박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듯이
 철저한 외톨이 근성으로 시를 들여다본다.
 언젠가 그러한 엄결성을
 조심스럽게 회의하는 내게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인은 소통을 꿈꾸지 않음으로써
 소통을 실천한다고,
 자초한 외로움이 거울 찬 별처럼
 아리도록 빛나게 한다고.

허만하 선생과 _____ 여행길을 한 번이라도 함께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된다. 선생은 살아 있는 지도와 같다는 것을. 지도 위에 올려놓은 나침반의 자침처럼 예민한 감각으로 시종일관 여행의 전 과정을 가리키며 깨어 있다는 것을. 선생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쯤에서 꺾어지고 어디쯤에서 오르막과 내리막 경사를 만나게 되는지, 거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 길에 얽힌 추억과 풍경들, 혹은 길에 관한 방대한 동서의 인문학적 교양들을 고스란히 다 꿰뚫고 있다.

초보운전 딱지를 아직 떼지 못했을 때의 일이었을 것이다. 시에서나 운전에서나 갓 면허증을 딴 애송이 후학으로서 선생을 뵙는 날이 잦을 무렵이었다. 그날은 처음 구입한 중고차를 타고 가벼운 드라이브 길에 올랐다. 창밖에 펼쳐진 비철의 바다가 알록달록한 파다솔 대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릴 듯이 서늘한 쪽빛으로 부풀어올라 있었다. 그런데 길눈이 어두워서 찢찢매는 내가 보기 안쓰러웠던지 뒷좌석에서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선생이 몸소 길 안내를 하기 시작했다.

“손형, 저 앞에서 우회전을 하게. 그리고 이백 미터쯤 쭉 가다가 좌회전, 그러면 오르막길이 나오지. 그 오르막길을 따라 오르면 커브가 급한 갈치재가 나온다네.”

해안선을 따라 기장까지 올라갔다 부산으로 돌아오던 짧은 여행길 내내 선생은 줄곧 그런 식이었다. 선생은 나뭇가지처럼 뻗어가는 그 길의 어디쯤에 까치밥 같은 마을이 숨어 있고, 또 그 길의 어디쯤에 철새들이 고단한 날개를 접고 쉬었다 가는 갈대밭과 호수가 깃들어 있는지를 자상하게 들려주었다. 그럴 때 선생의 음성은 차분하게 착 가라앉아 있었고, 드문드문 숨겨진 열정으로 조금씩 쾌청한 파도소리를 내며 출렁였다. 마치 선생의 몸 속에 들어온 풍경이 스스로 말을 건네

오고 있는 것 같았다. 길옆의 풀들이 머리카락이 되고, 대지의 흙알갱이들이 살점이 되고, 바위와 나무가 단단한 뼈대를 이루고, 강물이 혈액이 되어 몸을 얻은 뒤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그때 선생의 길 안내가 풍경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시라는 하나의 소설점을 향한 뒤, 다시 그것이 《길과 풍경과 시》가 되어 태어나는 순간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때의 감동은 언젠가 혼자서 들렀던 변산바다, 낙조가 지는 채석강 앞에 섰을 때의 벽찬 감동을 떠올리게 했다. 오래 묵은 포도주빛으로 숙성한 노을을 받으며 수직으로 기립한 정신, 밖으로 드러난 퇴적암 지층의 거대한 무늬결,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한 그 앞에서 나는 그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황홀해 하고 있었다. 깎아지른 벼랑 아래 주눅이 든 내 정신의 얇은 두께를 한탄하며 속절없이 비참해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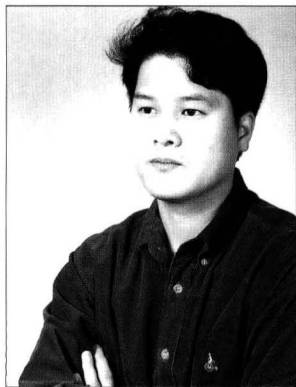
선생은 요즘도 여행을 갔다 오면(사모님과 늘 함께 다닌다. 선생도 자서自序에서 쓴 바 있듯이, 사모님이 없었다면 이 빛나는 산문집을 보게 될 행운을 우리는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산문집이 돋보이는 것은 상당 부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그 그윽한 그늘 때문이다), 광안리 해변에 있는 찻집에서 여행담을 들려주곤 한다. 요즘은 건강 때문에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가끔씩 술이라도 한 잔씩 걸치면 이야기에 흥이 돋는다. 지팡이를 짚고 운주사 와불을 보고온 이야기, 미황사 계들과 용추사 일주문을 보고온 이야기, 새로 난 길과 재를 달려본 이야기... 선생의 여행담은 천일야화처럼 지칠 줄 모르고 끝도 없이 이어진다. 흥이 좀더 고조되면 이야기가 어떤 가락을 타게 되는데, 유능한 소리꾼의 고수 역할까지 독차지해야겠다는 듯이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탁, 에먼 탁자를 내리치며 “택

수, 미황사 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줄 아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팔을 게다리처럼 펼치고 눈동자를 계눈처럼 들어올려 터져나오는 웃음을 애써 감추려들지 않는다. 그때의 선생은 또 얼마나 천진스러워 보이는지... 외람된 말인 줄 알지만, 나는 선생이 보여주는 언어의 싱싱한 피부가 사물에 대한 그와 같은 천진스러운 눈을 잃지 않고 있는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런 선생은 다소 폐쇄적인 면도 있다. 풍경에 대해서는 끝없이 개방되어 있으나, 번잡한 인간사에 대해서는 고집스러운 정도로 꼭 닫혀 있다. 선생은 어떤 문학행사에도, 문인들의 만남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중앙이고 지역이고 할 것 없이 문인으로서 선생은 단독자다. 스스로 외톨이를 자초한다. 병리학자로서 40년 가까이 실험실에 틀어박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듯이 철저한 외톨이 근성으로 시를 들여다본다. 언젠가 그러한 열결성을 조심스럽게 회의하는 내게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시인은 소통을 꿈꾸지 않으므로써 소통을 실천한다고, 자초한 외로움이 겨울 찬 별처럼 아리도록 빛나게 한다고.

나는 언젠가 선생을 두고 말했다. 선생님은 대지의 몽상가라고. 이제 다시 말해야겠다. 만하萬夏, 만 번의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르는 선생님은 스스로 이제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고, 수없이 왔으나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가을의 풍경이 되었다고. 그러면 선생은 그 특유의 소년 같은 눈빛으로 어떤 풍경이냐 묻겠지. 글썄요, 선생님의 산문에 자주 나오는 고개 같은 것이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다. 고개는 여기와 저기를 가로막는 장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기와 저기를 이어주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그 사이에 우리들의 길과 풍경과 시가 있는 것이다. **손택수**



손택수 (시인)

1970년 전남 담양 출생. 경남대학교 국문과 졸업. 199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 제 2회 부산작가상 수상. 시집 《호랑이 발자국》(창작과비평사)(2003) 간행.